

e-모빌리티 퍼레이드 ‘화제’

영광군,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 염원위해 진행

유튜브 채널 신설 눈앞...마스코트·개그우먼 김승혜 합류 눈길

영광군은 'e-모빌리티 시티'를 이끌어 갈 공무원들이 모여 영광스포티움에서 e-모빌리티 퍼레이드를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아쉽게 취소된 2020 e-모빌리티 엑스포를 대신하여 더욱더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질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영광군 공무원들이 4일 스포티움 앞에 모였다.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군의회 의장을 필두로 군 실과소 직원들이 참석하여 '2020 영광 e-모빌리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스포티움 경기장 앞에서 시작된 행진은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지나 보조축구장 주차장에서 마무리되었다.

영광군은 홍보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홍보 채널 다양화를 위해 이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2020 영광 e-모빌리티 퍼레이드' 또한 하나의 콘텐츠로서 게재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촬영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엑스포 마스코트인 모모, 티티 그리고 개그우먼 김승혜(KBS 29기, SBS 9기 공채 개그맨)가 퍼레이드에 합

계 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쓰임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퍼레이드를 계기로 군 직원들이 e-모빌리티 활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추후 범군민 PM(개인형이동수단) 이용 운동으로 확산되어 e-모빌리티 시티를 넘어 세계적인 e-모빌리티의 심장, 영광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화권 기자



무안군,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서

무안군은 동절기를 맞아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년 무안읍·일로읍 전통시장 2개소 화재공제 가입 통해 관리 CCTV 각각 4대씩 설치...매월 전기·가스·소방시설 정기점검

전통시장은 점포에 대량으로 적체된 상품과 의류, 잡화 등 인화성이 강한 취급품목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한 시설이다. 군은 매년 무안읍과 일로읍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하여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시장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가입점포의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공제 비중 60%(도비 3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CCTV를 각각 4대씩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장 주변을 확인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화재 주요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상인회와 상가들도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농어촌자원 활용 그린뉴딜사업 정책 제시

‘좋은 일자리 포럼’ 참석 “농어민 실질적 소득 증대되야”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5일 '지방정부가 함께 한국판 뉴딜 동행 선언-2020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사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

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한 축인 지역형 균형 뉴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좌장으로 전동평 영암군수, 안승남 구리시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현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하여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동평 군수는 그린뉴딜 주요 정책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촌지역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주민참여

형 신재생 태양광발전 확대 ▲풍력발전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 ▲경관농업의 확대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그린뉴딜사업 추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전동평 군수는 포럼에서 "도시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그린뉴딜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이고 뉴딜 정책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기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조정하여 국가 정책을 주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미래 먹거리 유기농산물 재배 확대

재배면적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최다...2017년 비해 6배 늘어

신안군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2,911ha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522ha에 불과했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3년이 지난 현재 6배를 확대 재배하여 국민안전 먹거

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19,505ha 중 4,411ha(22.6%)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신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중 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올해부터 단호박, 고구마, 무화과, 꾸지뽕 등 기존 농가들

에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여 토양환경 보전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과수와 채소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안전 먹거리 생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노인복지관 방문...구강검진 등 개인별 관리 서비스 제공

목포시 보건소는 관내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치아 상실 및 시린 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층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건강한 구강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전담팀을 꾸려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 도

포, 틀니 관리법 안내 및 관리용품 지원, 구강건강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관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4개소 약 2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월 중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강관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에서는 목포시민의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해 구강검진 프로그램을 비롯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